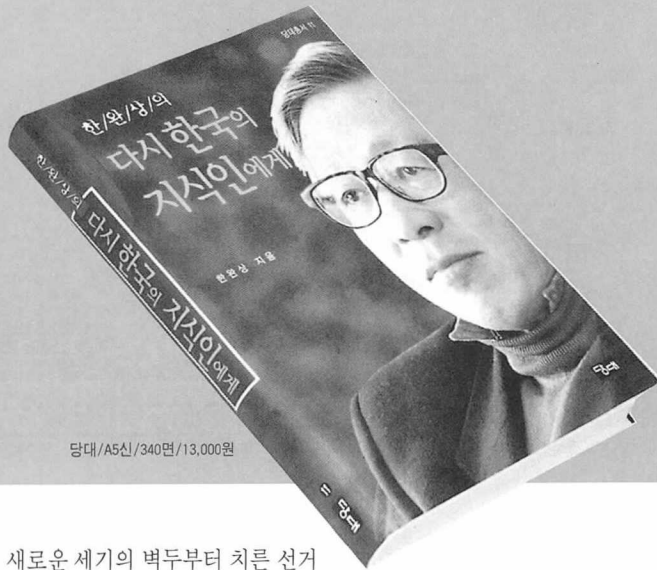


## '상잔의 정치'에서 '상생의 정치'로

한완상의 《다시 한국의 지식인에게》를 읽고

이호영 | 홍익대 강사

비판적 사회학자로서 일찍이 지식인의 사회참여를 독려해온 한완상 교수가 새로운 에세이집을 펴냈다. 그는 이 책에서 지난 시대의 냉전논리가 우리에게 남긴 것이 상잔의 정치였다면, 정보화 시대에는 쌍방향 커뮤니케이션으로 민주주의가 실현되는 상생의 정치를 꽃피워야 한다고 역설한다.



당대 / A5신 / 340면 / 13,000원

새로운 세기의 벽두부터 치른 선거를 보며 기분이 좋았던 사람은 그리 많지 않았으리라 생각한다. 그리고 그것을 둘러싼 언론의 호들갑 또한 달갑지 않기는 마찬가지다. 남북정상회담이다 뭐다 해 통일의 분위기가 무르익는 것 같지만 남한 내부의 지역간·계급간 갈등의 골은 오히려 깊어질 대로 깊어진 듯하다. '사회'에 대한 그리고 '사회적인 것'에 대한 이해는 무엇보다 공동체 내부의 연대와 성원들의 '인간다운 삶'에 대한 공통의 관심과 배려를 전제로 한다.

### 탈냉전 시대 지식인의 새로운 역할 제시

지난 10년간 우리는 전지구적인 규모에서 근본적인 변화의 물결을 목도했다. 20세기 지구인의 절반을 지배하던 하나의 사상이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졌다. 이제 세계지도상의 거의 모든 나라가 자본주의 경제라는 단일 시스템으로 묶이게 됐다. 국경 없는 시장의 도래로 요약될 수 있는 '세계화'의 흐름과 하룻밤 사이 업데이트되는 '정보화'의 물결 앞에서 많은 사람들은 그저 놀라움과 환호를 표하는 데 그쳤을 뿐 그것이 우리 사회에, 나아가 우리 사회를 구성하고 있는 사람들의 삶에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될지에 대한 비판적 시선은 드물었던 것이 사실이다.

일찍이 《민중과 지식인》(정우사, 1978)을 통해 80년대의 많은 대학생들에게 스스로의 자리를 되돌아보게 했던 한완상의 새책 《다시 한국의 지식인에게》(당대)는 여전히 이런 당대의 문제에 천착하면서 독자에게 생각할 거리를 제공하

는 미덕을 갖추고 있다. 20년의 시차에도 사물을 바라보는 그의 눈은 여전히 젊고 날 서 있으며, 보기 드물게 균형 잡힌 시각으로 독선과 편협함을 훌쩍 뛰어넘는다.

그는 현재 한국의 문제를 크게 두가지로 생각한다. 하나는 세계적인 탈냉전 무드에도 한국만이 여전히 가장 최악의 냉전체제를 고수하고 있으며 이것이 결국 남북한 권력의 지배논리로서 기능하고 있다는 것이다. 다른 하나는 21세기 세계는 급속히 정보화사회로 전환하고 있는데, 이런 변화는 산업화에 뒤쳐져 후진국의 설움 속에 살았던 한국인에게 많은 기회를 제공해준다는 것이다.

### 지은이의 혜안 돋보이는 에세이집

이 두가지 현상은 일견 관련이 없어 보이지만 우리가 군사력 증강을 위해 사용하고 있는 막대한 돈을 정보화사회의 구축, 나아가 세계시장 속에서 유리한 고지를 선점하는 데 써야 한다는 것이 그의 결론이다. 그에 따르면 지난 시대 냉전의 논리가 우리에게 남긴 것이 상잔의 정치, 즉 내가 죽어야 내가 사는 정치였다면, 이제 도래하는 새로운 정보화시대는 열린 사회, 즉 쌍방향 커뮤니케이션을 통해 민주주의가 실현되고 상생의 정치가 꽃피는 사회를 지향한다.

한가지 그가 놓치고 있는 것을 지적한다면 현

재 우리 사회에 존재하는 지식인 사회의 위기, 나아가 인문과학의 위기를 들 수 있다. 7,80년대의 대학생들이 '기득권'이라는 화두를 놓고 고민하며 졸업, 취직 등 당연히 축하받아야 할 의식을 '죄의식'으로 치러냈다면 이제 대학을 졸업하는 학생들은 노동시장의 불안정, 졸업장의 무의미함 때문에 괴로워하고 있다. 세계화니 정보화니 하는 것들이 우리 젊은이들의 일자리를 위태롭게 하고 있고 파이가 커진다고 해서 반드시 개개인의 삶의 조건이 향상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모두가 몸으로 느끼고 있다. 이런 생존 조건의 근본적 변화(악화?)를 고려하지 않은 채 열린 사회, 상생정치의 구상이 과연 가능할까?

이 책은 쉽게 읽힌다. 그만큼 저자가 어려운 문제를 깊이 고민하여 쉽게 풀어쓴 까닭이겠지만, 같은 이유로 분석력은 좀 떨어지는 편이다. 그럼에도 때론 자기 시대와 맞서, 또 때론 자기 시대를 보듬어 안으며 결코 냉소적이지 않은 시선으로 세상을 관찰하고 진단하는 그의 혜안과 한층 더 두터워진 생각의 쉼을 느낄 수 있다. 비판적 사회학자로서 또한 초대 통일부총리로서 그가 일관되게 추구해온 신념을 이해하는 데는 더할 나위 없이 좋은 텍스트다. ●